

##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구 구성의 조절 효과 -

윤중환\* · 허철무\*\*

###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ion Intention in Urban Agriculture - Moderating Effects of Household Type -

Yoon, Joong-Whan · Heo, Chul-Mo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ion intention in urban agricultur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study wer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nd Pine and Gilmore's Experiential Economy. The type of household composition was set as the moderating variable between thes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model,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439 effective respondent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Educational experience factors, escapist experience factors, attitudes,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hich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to positive (+) influence participation intention in urban agriculture.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ir influence relationship was as follow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attitudes > escapist experience factor > subjective norm > educational experience factor.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household compos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ducational experiences, escapist experiences, and subjective norm on participation intention in urban agriculture. Significant results were not tested on the moderating effects between attitude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participation intention in urban agricul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educational experience, escapist experience, participation inten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urban agriculture.*

---

\* 제1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whanflower@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cmheo@hoseo.edu)

## I. 서 론

세계적으로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은 도시농업 관련 의사결정자, 도시농업 종사자, 연구자, 학계 및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Dimitri et al., 2015; Tiraieyari and Krauss, 2018). 최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도시화 문제, 기후변화, 먹거리 안정성 문제를 포함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Lin et al., 2015). 도시 생태계를 향상시키고, 식량체계에 있어서 지역단위 참여를 촉진시키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의 재연결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Orsini et al., 2013). 이러한 다양한 혜택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들이 도시농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부터 시작된 도시농업은 최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농업은 2010년부터 정부의 정책으로 공론화되었고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MAFRA (2018)가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022)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종합 계획이 기반 및 생태계 조성인데 비하여 2차 종합 계획은 2020년까지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 사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1차 종합 계획이 농작물 경작에 한정된 도시농업의 개념 및 도시농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둔 반면, 2차 종합 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의 개념을 확장(수목, 화초, 곤충, 양봉까지 포함)하여 환경, 문화, 복지 등과 접목한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농업 참여자는 2017년 190만 명에서 2022년 4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이 국민의 정서 안정과 새로운 체험, 취미생활의 활성화,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여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도시 생활에서 지친 심신회복, 작물 재배과정의 즐거움, 재배한 작물을 이웃과 나누는 행복 등 다차원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 기술 내지 R&D 측면의 연구(Jeong, 2018; Lee and Lee, 2015)이다. 둘째,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Lee et al., 2013; Moon et al., 2019)이다. 셋째, 도시농업 소비자 측면의 연구(Lee and Cho, 2016; Tiraieyari and Krauss, 2018)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의 효용성 증대에 따른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의 선호 파악에 근거하지 않는 규범적인 제안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Lee and Cho, 2016).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선택하고 활동하는 주체인 도시민의 도시농업 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행동의도 파악과 관련하여 검증된 Ajzen (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도시농

업의 체험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Pine II와 Gilmore (1998, 1999)의 체험경제모델을 결합하여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유효한 439명의 응답자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행동 의도 모형과 체험 모형을 결합한 연구 모형을 도출한다.

둘째, 이렇게 도출된 모형을 도시농업 참여자와 잠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간의 영향력(impact)을 분석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인 의미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도시 농업(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되었고 2017년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덧붙여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의 개념이라 하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최근 도시농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도시농업의 영역이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을 포괄한다는 측면과 식물공장(plant factory), 빌딩형 농장 등 첨단 미래형 농업을 도시농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시각이 있어 도시농업의 개념을 어느 범주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

도시농업은 농업 활동을 함에 있어 장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라 도시농업의 평대도 한정된다. 또한 도시농업 활동은 체험, 교육, 세분화된 텃밭 유형 등으로 분류되므로 결국 도시농업의 유형은 목적과 기능, 정책, 목표 등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Tiraeyari와 Krauss (2018)는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이라 함은 도시 내 혹은

도시 근교에서 작물 재배, 가축사육을 통해 식량 또는 식량 이외의 생산물을 재배, 가공, 유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개념을 체험적 요소를 강화한 Lee와 Cho (2016)와 유사하게 도시 내 혹은 도시 근교에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 또는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행하는 일련의 농업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MAFRA (2018)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022)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종합 계획이 기반 및 생태계 조성인데 비하여 2차 종합 계획은 2020년까지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 사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1차 종합 계획이 농작물 경작에 한정된 도시농업의 개념 및 도시농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둔 반면, 2차 종합 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의 개념을 확장(수목, 화초, 곤충, 양봉까지 포함)하여 환경, 문화, 복지 등과 접목한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텃밭 면적을 2017년 1,100 ha에서 2022년 2,000 ha로 확대하고, 도시농업 참여자 수도 2017년 190만 명에서 2022년 4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4대 추진 전략과 13대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즉, 4대 전략 과제는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 영역 확장형 신서비스 창출, 미래형 융복합 모델 개발 및 보급, 도시농업활성화 기반 조성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도시농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Pervious studies on urban agriculture

Researcher	Theme
Lee and Cho (2016)	Analysis on the preference of urban agriculture types in accordance with lifestyle
Hwang et al. (2016)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purchase intention for promoting of urban agriculture
Kang and Back (2017)	Effect of urban agriculture experience program on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Tiraicyari and Krauss (2018)	Predicting youth participation in urban agriculture in Malaysia
Jun et al. (2018)	Research on the effects of family-based urban agriculture programs
Tiraicyari et al. (2019)	Factors influencing volunteering in urban agriculture
Oh et al. (2019)	Perspectives on the potential of job creation based on participation motivation, attitudes, and barriers to urban farming
Kim et al. (2019)	Effect of urban agricultural program for improving eating habi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선행 연구는 크게 3가지로 그룹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시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분, 도시농업 참여 후의 효과 관련부분, 기타 부분이다.

첫째, 도시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Tiraieyari와 Krauss (2018)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말레이시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도시농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들의 영향관계는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접목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Tiraieyari 등(2019)은 Tiraieyari와 Krauss (2018)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의 도시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기반을 두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국립대 대학생 89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조절변수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도입하였다. 사회적 규범이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더 높게 나타났다. 특정한 한 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를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시농업 참여 후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ang과 Back (2017) 도시농업체험 프로그램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시흥시 거주자 중 도시농업 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실험군(55명), 비참여 노인을 대조군(58명)으로 설정하였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T-test 검증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특정 도시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Jun 등(2018)은 가족단위의 식물재배와 텃밭요리 중심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J동 텃밭에서 가족단위로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20가족 중 아동 11명과 부모 13명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 총 4회에 걸쳐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가족단위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와 지능 향상, 부모의 가족건강성, 신체 심리건강의 향상과 채소 선호도의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만 있고 비교군이 없어 향후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한 비교분석을 하고 가족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im 등(2019)은 초등학교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 학생 중 실험군의 영양지식, 원예지식, 채소 선호도와 같은 식습관 개선 관련요인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서울 특정, 초등학교 특정, 학년생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체로 도시농업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Oh 등(2019)은 도시농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구지역 청년농부들을 대상으로 참여동기, 태도, 장애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6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이 청년층의 훈련, 교육, 창업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도시농업이 청년들의 대규모 고용 창출 및 안정적이고 양질의 직업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하였다. 도시농업의 규모화와 상업화가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 역시 특정 지역의 12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타 부분으로 Lee와 Cho (2016)는 도시농업을 선택하고 활동하는 주체인 도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선호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곳을 선정하여 도시농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효한 230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생활양식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도시농업 유형과 활동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족지향형이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향형 도시민은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wang 등(2016)은 소비자들이 가정용 수경재배기를 구매할 때 어떠한 요소들이 그들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가정에서 주로 먹거리를 구매하는 30대~50대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35부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사용편의성과 서비스의 질 요인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 도움 정도, 품질 및 기능 요인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 조사의 대상이 주부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바뀔 경우 구매의사 결정 요인의 영향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 2.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은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 변인에 행동통제 변인을 추가시켜 인간의 행동의도와 실제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 계획된 행동이론(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제시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사회적인 요인인 주관적 규범(subject norm),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용이함(perceived ease)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들고 있다. 이러한 행동 의도는 실제 행동을 하는데 선행변수가 되기도 하며 실

제 행동수행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여준다. 3가지 요소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행동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태도만 유일하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경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1) 태도(Attitudes)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란 특정된 행동을 하고자 결정하는 환경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evaluation or appraisal)의 수준을 의미한다(Ajzen, 1991). 즉, 태도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판단을 의미한다. 어떤 주어진 상징물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양태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학습된 요인이다. 이러한 태도가 실질적인 행동에 대한 선행 변인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대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 특정된 행동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여 태도와 행동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Bagozzi 등(1989)의 연구에 따르면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후회 혹은 쾌감 같은 정서적 요소들을 태도의 결정 요인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태도에 대한 이론이 주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여러 학자들의 의문점에 의한 것으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 관계를 맺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태도를 규명하는데 여러 분야의 학자들의 견해가 맞서고 있으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써 다수의 연구를 통해 그 결과가 검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 특정된 행동에 영향 관계를 맺는 가장 필요한 심리 변수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행동을 예상하거나 전환시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Ajzen (1991)은 태도와 행동의도 간에는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커진다고 하였다.

### 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주관적 규범(subject norm)은 특정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인지된 사회적 압력(perceived social pressure)이다(Ajzen, 1991). 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으로 준거인(referents)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승인할 것인지, 혹은 승인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와 그러한 신념에 순응하려는 개인의 동기이다(Ajzen, 1991). 즉,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 즉,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인 등이 내가 특정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집단 혹은 개인이 인지하는 행동 수행에 관련된 믿음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타인의 생각에 순응하고자 하는 동기의 상호 작용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특정된 행동을 수행하는 특정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며, 이러한 의식이 행동의도와 영향 관계를 맺는다는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 결국에는 자신과 인접한 환

경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현재 자신이 취하고 있는 특정된 행동에 관하여 그들의 기대에 맞서 부응하려는 동기가 높을수록 특정된 행동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Ajzen, 1991). 앞에서 기술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관적 규범이 외부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는 행동 혹은 개인적 기반이 높은 행동일수록 행동 의도를 예상하는 데는 주관적 규범보다 태도가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타인을 위한 구매와 같은 맥락의 행동은 태도보다 주관적 규범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준거인들이 그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낮다(Fishbein and Ajzen, 1975).

### 3)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행동의 실행이 쉽고 자기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수준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는 행동 실행성의 용이함과 어려움의 정도에 관한 개인적인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지각된 행동통제에는 과거의 경험 및 예상되는 어려움 내지 방해(anticipated impediments and obstacles)를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Ajzen, 1991). 즉,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용이성의 수준으로 시간과 돈, 정보, 기술, 타인의 협조 등 실제 행동의도에 있어 여러 가지 내적 혹은 외적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Ajzen, 1991). 이와 관련된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이 주어진 행동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실성을 의미하는 Bandura (1977)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 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특정된 행동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과 필요한 능력을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이행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된 행동에 관한 개인의 수행 가능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정된 행동에 관해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지각된 행동통제를 내적 혹은 외적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내적 요소로는 자아 능력과 자아 통제력, 자신감 등을 제시하였고, 외적 요소로 돈과 시간, 비용, 용이성, 기회, 기타 물질적인 환경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통제 신념(control beliefs)과 이에 대한 강도의 자각 즉, 지각된 영향(perceived power)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Ajzen and Driver, 1992). 지각된 행동통제가 클수록 특정 행동을 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한다(Ajzen, 1991).

### 4)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

Ajzen (1991)은 행동 의도를 신념 혹은 태도가 행동화될 주관적 가능성이라 했다. 이 행동 의도는 태도와 행동 사이의 매개변수로써 인식되는 것이며 자신의 주관적인 상황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 의도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소(motivational factors)를 포함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행동 의도가 높을수록 특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특정된 행동은 그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를 맺는 것보다 의도라는 매개요인을 기반으로 실현되고, 이러한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하여 영향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jzen, 2011). 즉, 특정된 행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혹은 신념의 크기를 측정하면, 관련 행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도란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투입하는 노력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행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식적 결정 혹은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동기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Ajzen, 1991).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계산된 확실한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어떤 행동도 의도하는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나 행동과 의도의 관계가 일관성 있지는 않지만, 행동을 실질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다른 지표를 이용하여 예상하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지표가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 3. Pine II and Gilmore의 체험모델

Pine II와 Gilmore (1998, 1999)는 체험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4가지 체험요소를 제시하였다. 4가지 체험요소는 가로축의 수동적 참여(passive participation)와 능동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세로축의 흡수(absorption)와 몰입(immersion) 등 체험 행위자의 참여 정도와 공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세분화 하였다. 즉, 능동적 참여 축선에는 교육적 체험(educational experience), 일탈적 체험(escapist experience)을 제시하였다. 수동적 참여 축선에는 오락적 체험(entertainment experience), 심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을 제시하였다.

교육적 체험(educational experience)은 능동적 참여와 흡수 영역이 교차하는 체험이다. 체험과정을 통하여 체험과 관련된 정보, 지식 혹은 기술적인 향상이 체험자에 의해 지각되는 정도이다. 즉, 이러한 교육적 체험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직접적인 정보 획득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적 체험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지적인 호기심과 지식의 원천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일탈적 체험(escapist experience)은 능동적 참여와 몰입 영역이 교차하는 체험이다. 일상적인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신기하고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카지노, 가상현실, 채팅 등 개인이 어떤 행위에 완벽하게 몰입된 상태에서 고달픈 현실 생활과 지루한 일상, 번거로운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현실도피적인 체험을 말한다(Lee and Lee, 2016; Lim and Ryu, 2016). 일탈적 체험을 누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비용 등 할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와 활동을 찾는다.

오락적 체험(entertainment experience)은 수동적 참여와 흡수 영역이 교차하는 체험이다. 참여자가 오감을 통해 쾌락적 감정과 유희적인 기쁨을 즐기는 것으로, 쾌락과 유희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You and Lee, 2014). Pine II와 Gilmore (1999)에 의하면 오락적 체험은 체험 경제적 요인 중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확산되고 있는 형태의 체험임과 동시에 체험 참여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의 체험요인이라고 한다.

심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은 수동적 참여와 몰입 영역이 교차하는 체험이다. 체험 대상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감각적 지각이나 인식을 통해 얻게 되는 체험이다. 심미적 체험 요소는 개인이 특별한 물리적 환경이나 이벤트에 몰입하게 되지만, 물리적 환경은 아무런 변화나 영향을 받지 않고 체험 장소에 몰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감정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도시농업은 체험의 요소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ne II와 Gilmore (1998, 1999)의 체험 4요소 중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교육적 체험(educational experience)과 일탈적 체험(escapist experience)을 연구 변인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체험 요소는 특히 관광분야에서 다양한 체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측정요소로서 타당성이 검증되어 왔다(Lee and Kim, 2014). 특히 일탈적 체험은 관광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연구되는 동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 Yong 등 (2019)에 의하면 체험요소는 관광 체험, 축제 체험, 한류 체험, 서비스 체험 등 관광분야의 다양한 체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측정요소로서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왔다고 한다. Lee와 Yu (2015)는 체험요소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4. 가구 구성의 조절 효과

여행이나 여가 관련 가족의 의사결정이 점차 여성과 자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는 도시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Lee와 Cho (2016)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 분석에서 가족 지향형이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향형 도시민은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와 Yoon (2011)은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 외식 의사결정자를 파악하고 캐주얼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선택 시 가족 외식 의사결정자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레스토랑 선택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별 가구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유형을 독립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공분산으로, 레스토랑 선택자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 유형이 가족 외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 설계

####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도시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계획된 행동이론(TPB)과 Pine II와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이었다. 독립변수는 TPB와 동일하게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체험경제요소 중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 요소를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도시농업 참여의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조절 변수로 가구 구성의 형태를 설정하였다. 가구 구성 형태는 부부와 고등학교 이하 자녀 1명 이상 있는 가구와 기타 가구로 나누었다. 이렇게 설정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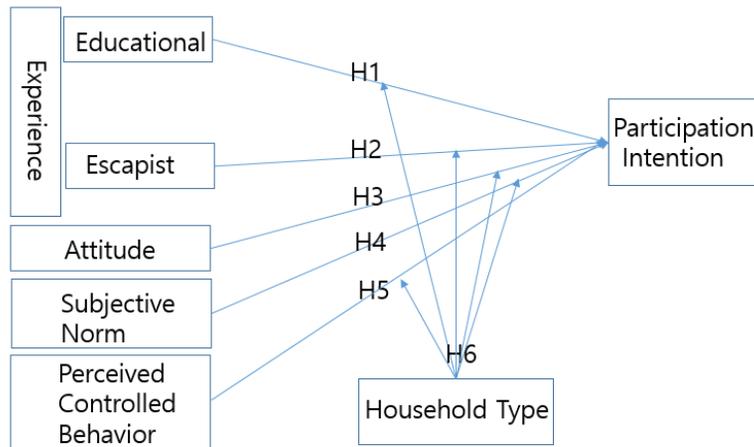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가설 설정

체험경제요소가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Lee와 Yu (2015)는 교육적 체험 요소와 일탈적 체험 요소 모두 축제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Yong 등(2019)은 교육적 체험 요소는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미치나, 일탈적 체험 요소와 참여 의도 간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You와 Lee (2014)는 교육적 체험 요소 및 일탈적 체험 요소 모두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은 합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사항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 H1. 도시농업의 교육적 체험 요인은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도시농업의 일탈적 체험 요인은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jzen (1991)에 의하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사회적인 요인인 주관적 규범(subject norm),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용이함(perceived ease)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들고 있다. 이러한 행동 의도는 실제 행동을 하는데 선행 변수가 되기도 하며 실제 행동 수행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여준다. 3가지 요소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행동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태도만 유일하게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경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Tiraieyari와 Krauss (2018)는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도시농업 참여 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모두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들의 영향 관계는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Oh 등(2019)에 의하면 도시농업 참여의도에 주변 사람들의 권유(주관적 규범)와 도시농업에 대한 태도가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이론적 배경에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H3. 도시농업에 대한 태도는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도시농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도시농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는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Lee와 Cho (2016)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 분석에서 가족 지향형이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향형 도시민은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와 Yoon (2011)은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 외식 의사 결정자를 파악하고 캐주얼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선택 시 가족 외식 의사 결정자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는데 가족 유형이 가족 외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등(2010)은 젊은 층의 경우 소득이나 여가시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반면,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거나 자녀교육의 목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구성을 부부와 고등학교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나누어 이들의 조절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H6-1.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교육적 체험 요인과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 H6-2.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일탈적 체험 요인과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 H6-3.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태도와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 H6-4.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주관적 규범과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 H6-5.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지각된 행동통제와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 3. 설문 설계 및 조사

본 연구를 위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크게 도시농업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부분과 인구통계학적인 부분을 묻는 부분으로 나누었다. 도시농업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중심으로 Pine II와 Gilmore (1998, 1999)의 체험이론의 일부를 접목하여 도시농업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최종 채택된 측정변수와 원출처는 Table 2와 같다. 모든 항목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즉,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이다.

Table 2. Measurement items

Variables		Measurement Items	Sources
Educational experience	Edu1	도시농업은 창의성을 느낄만한 요소를 제공할 것이다	Pine II and Gilmore (1998, 1999)
	Edu2	도시농업 참여는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Edu3	도시농업 참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Escapist experience	Esc1	도시농업 참여는 나의 일상생활을 잠시 잊게 해 줄 것이다	
	Esc2	도시농업 참여하는 동안 나는 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을 것이다	
	Esc3	도시농업 참여하는 동안 잠시 나를 다른 세계로 몰입하게 해줄 것이다	
Attitude	Att1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Ajzen (1991); Tiraieyari and Krauss (2018)
	Att2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Att3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참여하고 싶다.	
	Att4	도시농업은 나에게 매우 큰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Variables		Measurement Items	Sources
Subjective Norm	SN1	나의 가족들은 내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Ajzen (1991); Tiraieyari and Krauss (2018)
	SN2	나의 친구들은 내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SN3	나의 동기 혹은 직장동료들은 내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SN4	나의 부모, 형제나 친한 친구들은 내가 도시농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SN5	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사람들(예: 직장상사 등)은 내가 도시농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SN6	부모, 형제나 친한 친구, 직장동료 등은 내가 도시농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할 것이다	
Perceived controlled behavior	PCB1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PCB2	내가 도시농업에 참여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PCB3	도시농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PCB4	나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PCB5	나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데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Household type		단독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기타 가구	
Participation intention	PI1	나는 도시농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Ajzen (1991); Tiraieyari and Krauss (2018)
	PI2	나는 앞으로 도시농업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다	
	PI3	나는 앞으로 도시농업 참여가 일상생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PI4	나는 앞으로 도시농업에 자주 참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를 Table 3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현재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0 : 50 비중으로 선정하였다. 총 450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그 중 유효한 439부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Table 3. Sampling and survey

Category	Descriptions
Population	Potential and active participants of urban agriculture
Sampling	Random sampling
Effective sample size	439
Survey period	2020. 03. 10 ~ 2020. 03. 20
Survey method	Online and offline questionnaire

## IV. 실증 분석 결과

###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 활용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 56.0%, 여성 44.0%였다. 연령은 50대가 46.51%로 가장 많았다. 40대 23.9%, 60대 이상 19.4%로 전체 응답자 중 40대 이상이 90% 가까이 차지하였다. 대졸자가 전체 응답자의 48.3%였다. 가구 구성은 부부만 있는 가구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고등학교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둔 가구가 30.5%였다. 한편, 최근 10년간 도시농업 참여 횟수는 55.6%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4.4%는 1회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은 18.5%로 나타났다.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requency	%
Gender	Male	246	56.0
	Female	193	44.0
	Total	439	100.0
Age	20s	14	3.2
	30s	31	7.1
	40s	105	23.9
	50s	204	46.5
	over 60's	85	19.4
	Total	439	100.0

		Frequency	%
Education	High school	133	30.3
	University	212	48.3
	Graduate school	94	21.4
	Total	439	100.0
Household	Single	63	14.4
	Couple	147	33.5
	Parents + children	134	30.5
	Others	95	21.6
	Total	439	100.0
Frequency of participation	None	244	55.6
	1	41	9.3
	2	32	7.3
	3	29	6.6
	4	12	2.7
	over 5	81	18.5
	Total	439	100.0

## 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가설을 검정하기에 앞서 변인들의 측정 항목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판단은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사용하였다. KMO (Kaiser-Meyer-Olkin)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값이 .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Cho, 2016). 그 결과 본 연구의 경우 유의 확률 .00에서 KMO 값이 .937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하지 아닌지는 유의확률로 파악하게 된다. 귀무가설은 상관관계 행렬이 단위행렬이고 귀무가설이 기각되어야만 요인분석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8061.415 ( $p=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 분산은 85.077%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과 동일하게 6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즉,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및 종속변수인 참여 의향 6개 요인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각 변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및 종속변수인 참여 의향 모두 임계치인 .7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Mean	SD	Sum of Square Loading (%)	Cronbach's $\alpha$
Subjective norm	SN3	.828	3.50	.827	20.925	.928
	SN2	.802	3.57	.821		
	SN1	.754	3.60	.827		
	SN6	.728	3.25	.958		
	SN4	.675	3.38	.970		
Escapist experience	Esc2	.866	3.78	.807	35.515	.909
	Esc3	.810	3.74	.846		
	Esc1	.770	3.89	.816		
Perceived controlled behavior	PCB4	.885	2.75	1.156	50.022	.886
	PCB5	.848	3.10	1.077		
	PCB2	.691	3.18	.965		
Participation intention	Intention2	.789	3.45	.999	63.866	.963
	Intention1	.779	3.56	1.030		
	Intention4	.754	3.34	1.012		
Educational experience	Edu2	.836	3.94	.719	76.782	.898
	Edu3	.778	3.83	.776		
	Edu1	.643	3.65	.796		
Attitude	Att1	.826	3.91	.754	85.077	.852
	Att2	.648	3.80	.823		

### 3.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 타당성이 확인된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8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충족되었다(Cho, 2016). 상관계수 모두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Education	Escapist	Attitude	SN	PCB	Intention
Education	1					
Escapist	.636**	1				
Attitude	.657**	.604**	1			
SN	.686**	.586**	.685**	1		
PCB	.505**	.438**	.470**	.588**	1	
Intention	.639**	.616**	.651**	.686**	.663**	1

\*\* 0.01 level of significance

#### 4. 가설 검정 결과

#####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통제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VIF는 모두 10 이하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를 미치고 있어 가설 1, 2, 3, 4, 5 모두 채택되었다. 변인들의 영향력은 지각된 행동통제( $\beta=.342$ ) > 태도( $\beta=.199$ ) > 일탈적 체험( $\beta=.182$ ) > 주관적 규범( $\beta=.175$ ) > 교육적 체험( $\beta=.098$ ) 순이었다.

교육적 체험이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098, t값이 2.188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1. 도시농업의 교육적 체험 요인은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일탈적 체험이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182, t값이 4.602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 도시농업의 일탈적 체험 요인은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태도가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199, t값이 4.602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 도시농업에 대한 태도는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주관적 규범이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175, t값이 3.77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4. 도시농업의 주관적 규범은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342, t값이 9.422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5. 도시농업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 test

Hypothesis	Path	$\beta$	t	p	VIF	Results	statistic
Controlled variables	Gender	.002	.069	.945	1.048		R=.807 Adjusted R <sup>2</sup> =.645 F=100.666 P=.000
	Age	-.055	-1.897	.059	1.034		
	Education	.024	.851	.395	1.016		
H1	Education → PI	.098	2.188	.029	2.460	Supported	
H2	Escapist → PI	.182	4.602	.000	1.940	Supported	
H3	Attitude → PI	.199	4.602	.000	2.316	Supported	
H4	SN → PI	.175	3.770	.000	2.650	Supported	
H5	PCB → PI	.342	9.422	.000	1.628	Supported	

## 2) 가구 구성의 조절효과

가구 구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였다. Hayes 교수가 개발한 Process macro 3.4는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매개 및 조절효과 분석 전용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최근에 조절효과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절 효과 분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분석 방법과는 달리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상호 작용항의 유의성 위주로 검정하며, 이 상호 작용항이 유의한 경우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Hayes,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작용항의 유의성 위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차를 추정하는 bootstrapping 방식으로 오차 및 신뢰 구간을 추정하여 조절 효과의 유의성을 파악하였다(Hayes, 2013). 신뢰 구간 추정법에 의한 조절 효과 가설 검정의 경우 상호 작용 항(독립변수×가구 구성)의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 CI)의 하한선(lower limit of 95% CI : LLCI)과 상한선(upper limit of 95% CI : ULCI) 값 사이에 0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즉, 둘 사이에 0이 존재하면 유의하지 않는 것이며, 0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가구 구성(부모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과 기타 가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에 따라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주관적 규범이 도시농업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6-1.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교육적 체험 요인과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2.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일탈적 체험 요인과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4.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주관적 규범과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반면,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은 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6-3.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태도와 참여 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5. 가구 구성은 도시농업의 지각된 행동통제와 참여의도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Table 8. Results of moderating effects test

Path		Coeff	t	LLCL	ULCL	Statistics	Results
Education → PI	Education	.670	13.186	.570	.769	△R <sup>2</sup> =.018 F=11.695 P=.001	Supported
	Household	-.221	-2.622	-.386	-.055		
	Interaction	.365	3.420	.155	.575		
Escapist → PI	Escapist	.642	12.910	.544	.739	△R <sup>2</sup> =.011 F=6.931 P=.010	Supported
	Household	-.218	-2.572	-.385	-.051		
	Interaction	.270	2.633	.068	.471		
Attitude → PI	Attitude	.848	17.734	.754	.942	△R <sup>2</sup> =.002 F=1.675 P=.196	Not supported
	Household	-.248	-3.235	-.398	-.097		
	Interaction	.132	1.294	-.069	.333		
SN → PI	SN	.840	19.264	.755	.926	△R <sup>2</sup> =.007 F=6.053 P=.014	Supported
	Householdt	-.185	-2.513	-.330	-.040		
	Interaction	.226	2.460	.045	.406		
PCB → PI	PCB	.661	17.897	.589	.734	△R <sup>2</sup> =.003 F=2.454 P=.118	Not supported
	Household	-.082	-1.044	-.235	.072		
	Interaction	.124	1.567	-.032	.280		
	Interaction	.226	2.460	.045	.406		

## V. 결 론

###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도시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계획된 행동이론(TPB)과 Pine II와 Gilmore (1998, 1999)의 체험경제이론이었다. 독립변수는 TPB와 동일하게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체험 경제 요소 중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 요소를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조절 변수로 가구 구성의 형태를 설정하였다. 가구 구성 형태는 부부와 고등학교 이하 자녀 1명 이상 있는 가구와 기타 가구로 나누었다. 이렇게 설정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유효한 응답자 439명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칠 독립변수로 설정된 교육적 체험 요소, 일탈적 체험 요소,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의

영향 관계의 크기는 지각된 행동통제 > 태도 > 일탈적 체험 요소 > 주관적 규범 > 교육적 체험 요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구성에 따른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교육적 체험 요소, 일탈적 체험 요소 및 주관적 규범이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태도나 지각된 행동통제와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가 검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을 학술적인 관점과 실무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및 시사점이다.

첫째, 도시농업에 대한 소비자 내지 참여자 관점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의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TPB)를 토대로 도시농업도 체험적인 요소가 강해지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여 체험 이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Pine II와 Gilmore (1998, 1999)의 체험경제이론의 요소 중 일부를 결합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부 연구(Tiraieyari and Krauss, 2018)를 제외하고는 이론적인 토대가 빈약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검정된 이론을 토대로 진행한 본 연구는 향후 학술적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인들이 Ajzen (1991)에 의하면 3가지 요소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행동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태도만 유일하게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경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변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가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 관계를 미치고 있어 계획된 행동이론(TPB)가 도시농업 참여 의도 검정에도 유용했다는 점이다.

셋째, 체험경제이론의 변인 중 본 연구에 활용한 교육적 체험 요인과 일탈적 체험 요인이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연구마다 합의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체험 요인과 일탈적 체험 요인 모두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합의된 결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가정의 의사결정에서 여성과 자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 유무가 참여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녀와 관계가 있는 교육적 체험 요소와 일탈적

체험 요소 및 사회적 영향인 주관적 규범이 미치는 영향이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 중시와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일탈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도시농업 참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 여부 내지 공동 참여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된다. 조절 변수로 가구 구성의 차이가 의미가 있음을 밝힌 점도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도시농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 차원에서도 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시농업 참여자도 2017년 19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4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도시농업 참여의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 도시농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지각된 행동통제)이었다. 도시농업 중 대표적인 텃밭 가꾸기 등에 대한 온라인 홍보나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도시농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를 위한 교육적인 체험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도시농업의 교육적 효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현재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과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조절 변수로 가구 구성을 사용하였는데 가구 구성을 자녀 유무 2개 집단으로만 단순화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가구 구성의 세분화와 다른 변수들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기존 많은 연구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설문 샘플링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했는데 조사된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형태가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정이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ubmitted, April. 13, 2020 ; Revised, May. 8, 2020 ; Accepted, July. 7, 2020]

## References

1.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2. Ajzen, I. 201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 Reactions and Reflections. *Psychology & Health*. 26(9): 1113-1127.
3. Ajzen, I. and B. L. Driver. 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207.
4. Bagozzi, R. P., J. Baumgartner. and Y. J. Yi. 1989.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Intentions as Mediators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0(1) : 35-62.
5.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6.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7. Cho, C, H. 2016. *Statistical Analysis of SEM Using SPSS/AMOS*, Chungnam. Seoul, Korea.
8. Dimitri, C., I. Oberholtzer, and A. Pressman. 2015. The Promises of Farming in the City : Introduction to the Urban Agriculture Themed Issue. *Renewal of Agriculture Food System*. 30(1): 1-2.
9. Fishbein, M. and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 Wesley, MA, USA.
10. Hayes, A. H.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The Guilford Press, NY, USA.
11. Hwang, J. I., Y. J. Choi, B. G. Jang, and S. Y. Rhee. 2010. Segmentatio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Urban Farmers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1(4): 619-631.

12. Hwang, S. Y., J. Y. Yu, J. H. Moon, and B. J. Park. 2016.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Purchase Intention in Hydroponic Instruments for Promoting of Urban Agricultur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3(4): 813-837.
13. Jeong, M. I. 2018. Urban Agricultural Research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21(3), Separate No. 1.
14. Jun, N. R., S. A. Kim, Y. A. Oh, S. O. Kim, S. J. Hong, and S. A. Park. 2018. Research on the Effects of Family-Based Urban Agriculture Programs. *Journal of People Plants Environment*. 21(5): 144.
15. Kang, H. K. and S. J. Back. 2017. Effect of Urban Agriculture Experience Program on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Journal of People Plants Environment*. 20(1): 1-6.
16. Kim, H. R., S. O. Kim, and S. A. Park. 2019. The Effect of Urban Agricultural Program for Improving Eating Habi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orticulture Abstracts*. 10: 53.
17. Law of Fostering and Supporting of Urban Agriculture.
18. Lee, B. N., D. H. Yang, and E. H. Lee. 2013. An Analysis of Policy and Current Status in Urban Agriculture-Focus on Seoul and Gyeonggi-do.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eople Plants Environments*. 16(3): 151-159.
19. Lee, D. G. and S. H. Cho. 2016. The Analysis on the Preference of Urban Agriculture Types in Accordance with Lifestyl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6): 40-50.
20. Lee, S. and J. Lee. 2015. Beneficial Bacteria and Fungi in Hydroponic System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ydroponic Food Production Methods. *Scientia Horticulturae*, 195: 206-215.
21. Lee, T. H. and M. J. Kim.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xperience on Tourist-Tourism Destination Brand Relationship and Brand Loyalty Focusing on SUWON HWA-SEONG. *Jornal of Photo Geography*. 24(3): 105-117.
22. Lee, K. Y. and K. A. Lee. 2016. Theoretical Study and Research Trend of Three Perspectives of Experiential Marketing. *A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9(4): 123-130.
23. Lee, Y. Y. and B. H. Yu. 2015. The Effects of Experiential Factors on Festival, Enjoyment,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 An Application of Korea Wine Festival.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27(1): 271-290.
24. Lim, J. P. and J. S. Ryu. 2016.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Val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t Experience Factors (4E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and Revisit.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4(2): 75-91.
25. Lin, B. B., S. M. Philpott, and S. Jha. 2015. The Future of Urban Agriculture and Bio

- Diversity Ecosystem Services : Challenges and Next Steps. *Basic Applied Ecology*. 16(3): 189-201.
26. MAFRA. 2018. 2<sup>nd</sup> Five Year Planning of Fostering and Supporting of Urban Agriculture (2018~2022).
  27. Moon, B. H., S. Y. Wei, and C. H. Oh. 2019. The Status and Application of Urban Agriculture in Seoul's Public Child Care Center.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s and Ecology*. 29(1): 128-129.
  28. Oh, I. K., J. A. Seo, and S. O. Jang. 2019. Perspectives on the Potential of Job Creation Based on Participation Motivation, Attitudes, and Barriers to Urban Farming : Focused on Young Farmer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1(2): 55-70.
  29. Orsini, F., R. Kahane, R. Nono-Womdim, and G. Gianquinto. 2013. Urban Agriculture in the Developing World : A Review. *Agron Sustainable Development*. 33(4): 695-720.
  30. Pine II, B. J. and J. H. Gilmore. 1998.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97-105.
  31. Pine II, B. J. and J. H. Gilmore. 1999.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re & Every Business a Stag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USA.
  32. Seo, S. H. and E. J. Yoon. 2011. Influence of Family Type on Family Dining Decision Maker : Casual Dining Restaurant versus Fast Food Restaurant. *Korean Journal of Hotel Administration*. 20(4): 99-115.
  33. Tiraeyari, N. and S. E. Krauss. 2018. Predicting Youth Participation in Urban Agriculture in Malaysia : Insights from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Functional Approach to Volunteer Motivation.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35: 637-650.
  34. Tiraeyari, N., R. M. Ricardc, and G. N. McLean. 2019. Factors Influencing Volunteering in Urban Agriculture : Implications for Recruiting Volunteers.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 45: 1-9.
  35. Yong, S. H., C. H. Park, and S. J. Han. 2019. The Effects of Experience Economy Factors (4Es), Experience Satisfaction, Behavior Intention of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 Focused on The Experience Economy Theory of Pine and Gilmore.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31(2): 151-172.
  36. You, G. J. and H. J. Lee. 2014. Examining the Impact of Experience on Festival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s and Supports based on the 4 Experience Economy Theory : Focused on the Yangyang Songi Festival of Gangwon Province.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26(3): 263-281.